

‘녹조라떼’ 풍암호 수질 개선 ‘마땅한 개’ 안보이네

광주 서구 2년만에 TF 회의...수심·담수량 축소 등 기존안 검토만 농수용 폐지·내년 공원 조성 3급수 수준 제고 계획 ‘실효성 의문’

매년 극심한 녹조에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광주 서구 풍암호수에 대한 수질개선안이 나왔지만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3년동안 5차례에 걸친 수질개선회의가 진행돼 수심을 낮춰 담수량을 줄이는 안이 주요 안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도 실효성 검증이 되지 않았고, 시민의견 수렴절차나 환경평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구청에서 제5차 풍암호수 수질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지난 2020년 10월 4차 회의가 열린 이후 2년만에 개최되는 자리였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기존안에 대한 중간 검토만이 이뤄졌다.

2년 전 열린 풍암호수 TF 4차회의에서는 관찰청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12가지 수질개선안을 내놓았다.

당시에는 하루 250㎥ 이상 맑은 물을 공급하고 담수량을 현재 44만 7000㎥에서 12만 5000㎥ 수준으로 줄이며, 6m 수준인 최고 수심을 2m까지 줄인다는 등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4차 회의의 이상의 새로운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기존 방안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된 결과가 발표됐을 뿐이다.

지하수를 끌어와 매일 1000㎥의 맑은 물을 공급하고, 하루 2900 t의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며 인근에 자연형 습지원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물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전체적인 담수량을 줄인다는 방안도 그대로다. 다만 12만 t이었던 목표 담수량만 16만 5000 t으로 조정했다.

현재 풍암호는 담수량이 많아 한 번 유입된 물이 300일 가량을 머무르는데, 물 양을 줄이고 유입·배출을 원활하게 해 체류 기간을 150일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농업기반시설로서 용도를 폐지한다는 안도 나왔다. 풍암호수는 농업용 저수지로서 주변 농지 38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들 농지에 별도의 취수 시설을 마련해 주고 풍암호를 오토이 공원용 호수로 용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TF회의를 추가로 진행한 뒤 내년 4월부터 공원 조성 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개선안들을 적용하면 풍암호수 수질이 5급수에서 3급수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3년 동안 검토해 온 방안들이지만 하루 1000㎥에 달하는 지하수를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냐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끌어다 쓰면 결국 지하수는 고갈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지반 침하, 싱크홀(땅꺼짐) 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하수 수량을 유지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도 틀이



시민들이 28일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공원에서 녹조 현상으로 초록색으로 변한 호수 물을 보며 산책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020년부터 남구청 지하에서 400㎥의 물을 끌어오고 염주실내수영장 유용수 100㎥, 풍암호수 주변 관로 700㎥ 등을 추가로 끌어온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관로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들

어가는 등의 이유로 실현 가능성은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

이밖에 호수 바닥을 인위적으로 높이면서 집중호우 시 홍수 등 재해 가능성이 커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하수 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다음 TF회의에 반영할 것”이라며 “지하수를 끌어오는 방법의 다른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구체적인 설계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쓰레기에 파묻힌 ‘일제 동굴’

관리 부실로 광주 4개 중 3개 훼손...문화재 등록 등 대책 필요

일제강점기 때 광주지역에 만들어져 군용 유류고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동굴은 개발 등의 이유로 원형조차 찾을 수 없고,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입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28일 오후 기념회관에서 ‘숨어있는 광주역사: 일제와 상무비행장’이라는 주제로 광주학생독립운동 93주년 기념 역사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선 1945년 전후 광주비행장과 동굴의 형성 배경과 이 유적들의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이국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광주지역 아시아태평양 전쟁 유적 현황 및 역사문화자산활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군용 시설로 일제시대 만들어진 동굴들의 관리실태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폭탄고와 유류고

용도로 만들어진 동굴에 쓰레기가 가득차 입구를 찾기 어렵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맞은편 3개 동굴 중 2곳은 한쪽 면이 절개된 뒤 시멘트로 입구가 막혀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동굴은 전주교광주대교 구 부지 내에 있어 접근조차 할 수 없어 원형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사유지에 위치한 시설물이지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그나마 현재 남아있는 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문화재에 등록해 관리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주백 전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광주지역 1940년대 병참기지화의 역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광주항공기지는 비행사를 양성하는 훈련기지였다”고 주장했다.

신 전 소장은 “두 개의 활주로는 전황에 따라 소형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됐다”면서 “광주시 서구 월암마을 뒷산인 사월산에 3개의 탄약고가 있었고, 현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과 개인 사유지에 총 4개의 연료고 동굴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 법인, 민영돈 총장 징계 철회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민영돈 조선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했다.

조선대 법인은 “민 총장이 이사회에서 요구한 교수 등 9명에 대한 징계를 이사회에 제청함에 따라 징계사유가 소멸됐다”면서 “총장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법인 징계위원회에 총장에 대한 징계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징계대상자는 국책사업 보고서 누락과 관련한 교수와 책임자 등 7명, 교수가 6학기 동안 대리강사에게 수업을 맡긴 것과 관련한 책임자 포함 2명 등이다.

법인 이사회는 민 총장이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하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 지난 7월 징

계를 의결했다. 민 총장은 그동안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 제청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징계 대상에 포함된 교수들이 징계회부를 자청함에 따라 총장이 해당자 등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는 데다 학생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을 감안, 더 이상 사태가 악화해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채썰기 연습 사진 보내라” 영양사의 괴롭힘

인권위, 광주 모 중학교에 인권교육 실시 권고

학교 조리사에게 50일간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시킨 것은 휴식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광주지역 A중학교 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중학교 조리사인 B씨는 “학교 영양사가

2021년 1월부터 약 50일간 주말·명절을 불문하고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는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확인받을 것을 지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또 약 3개월 동안 다른 조리원들 앞에서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양사는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등을 고려해 배려 차원에서 권유한 것이었고, 채썰기 연습 사진을 보내도록 한 점도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다”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관련 지시를 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휴식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영양사의 부적절한 언행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영양사가 현재 퇴직했으나 괴롭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흥부가 돌아왔다!

흥부제

제30회

2022. 10. 7. (금) ~ 10. 9. (일)

사랑의광장일원 및 인월면

주최 · 주관 |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흥부제 일정표

<p>10월 7일 개막식 불꽃놀이 축하공연</p> <p>10월 8일 흥부를 찾아라 덕음산 가족사랑걷기</p> <p>■ 흥부네 가족 비빔밥 나눔 행사 흥부제 기념 전국노래자랑</p> <p>■ 흥부와 함께 하는 수어문화제 흥부樂 놀부樂 한마당</p> <p>■ 판소리 열전 - 흥부를 만나다</p> <p>10월 9일 흥부골 스타 탄생</p> <p>■ 대결 흥부놀부 명랑운동회 흥부 품바 명인전</p> <p>■ 판소리 열전 - 흥부를 만나다 전통회혼례</p>	
---	--